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재해 대비 저수지 비상 대처 훈련

✎ 박연수 기자 | ㉠ 승인 2025.05.28 14:45

충주시 산척면 송강저수지에서 재난 대비 실전 훈련 가져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가 재해 대비 저수지 비상 대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충주제천단양지사 제공)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지사장 전승민)가 여름철 집중호우 재난 대비에 나섰다.

28일 지사에 따르면 최근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소재 송강저수지에서 재해 대비 비상대처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공사, 지자체, 유관기관 등 관계자 50여 명 참여한 가운데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저수지 범람, 붕괴 등의 위험 상황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붕괴 상황을 가정해 위험 상황 전파, 주민 대피, 응급 복구, 복구 대책 수립 등을 실시했다.

전승민 지사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비상대처 계획을 수립하고, 실전 같은 훈련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상시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수 기자 sooya7311@ccdn.co.kr